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일 화요일 음 10월 13일 (5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30%
20%	성산	30%
20%	고산	30%
2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6/9°C
모레 흐림 6/12°C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9°C, 낮 최고기온은 11~16°C로 예상된다. 기온 낮아져 춥겠다. 늦은 밤(21~24시)부터 산지에 눈이 내릴 수 있으니 차량 운행에 유의해야겠다.

해뜰 07:21 해설 17:26 달뜰 15:00
달설 03:51
물때 만조 08:28 간조 02:06
20:17 14:49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데스크칼럼



고 대 로

편집국장

제주도의회가 새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6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

겉으로는 대폭 삭감처럼 보이지만 이번 계수조정은 단순한 '줄이기'가 아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떨어내고, 현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부분은 되레 늘리는 '선별적 조정'에 가깝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압축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예산 등 191억여 원을 감액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역혁신중심

예산심의, 지방재 4820억의 그림자를 명심해야

대학지원사업(RISE)·수소 승용차 보조금·제주~청다오 항로 보전금 등에서도 150억원가량을 줄였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관광 블루 오션 사업, 바다페스타 등 90개 사업에서는 83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양 행정시의 경로당 개보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증액됐다. 필요성 낮은 예산을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했다는 점에서 조정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예산안의 총규모가 아니라 '재정 구조'다.

새해 예산안은 7조7875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이 중 4820억원이 지방채다. 지방채는 단기적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만, 누적될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고령화 가속, 인구 정체, 사회기

반시설(SOC) 유지·보수 비용 증가, 기후위기 대응 지출 확대 등 제주가 직면한 구조적 지출은 이미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단순한 예산 확장보다 더 큰 위협은 이러한 '지속적 고정 비용'의 급증이다. 지방재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 여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제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느냐다.

삭감은 지방의회의 권한이지만, 증액은 지자체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결국 도의회와 도정이 어떤 재정 철학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내년 재정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우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현재 제주 재정은 성과 평가 부

실, 지출 구조 경직화, 지방재 증가, 기후·인구 변화로 인한 재정 수요 확대라는 네 가지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손대지 않는다면 제주도 재정은 보다 깊고 장기적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예산 항목 일부를 고치는 조정이 아니라,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위기 시대의 투자 우선 순위 재정립, 고령사회·인구 정체에 대응한 지출 구조 개편, 지방재 관리 원칙의 명확한 설정. 이 네 가지 원칙이 예산 심사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단지 내년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주 재정이 앞으로 10년, 나아가 20년을 버틸 수 있는지 가늠하는 미래 설계의 시험대다.

월드뉴스

교황,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재 의지 언급

튀르키예 방문 후 간담회서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튀르키예 방문을 마치고 레바논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황청은 지난 수년간 '두 국가 해법'이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나라로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할 때인 2015년 교황청은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을 관할하는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가 승인을 공식화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 해법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를 거부한다.

레오 14세는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우호적 관계"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5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추자도,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새 희망을!

차 무 관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제주도 최북단에 위치한 추자도는 수려한 해안 절경, 풍부한 해양 자원, 그리고 독특한 섬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천혜의 보물섬'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산업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현재 추자도 방문객은 올레길 탐방객과 낚시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기간을 늘리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자만의 매력을 살린 체험 중심의 특화상품이 필요하다. 추자10경과 나바론 절벽, 모진이

몽돌해변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추자군도 해상투어 상품과 올레길, 천주교 순례길(황경한의 묘 등)을 연계한 역사적 인물과 스토리를 발굴하고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삼치 등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어촌 요리 강습 및 미식체험',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해양생물 관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을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로 인스타, 유튜브 등을 활용하고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팬투어도 고려해 볼만하다.

관광서비스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관광 해설사, 체험 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관광산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 사회에 고르게 분배되고, 다시 관광인프라 개선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민들의 만족도와 참여의지를 높여야 한다.

윤 매 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성산의 바람은 차갑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온기는 쉽게 식지 않는다. 올 한 해 성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움직였다.

올해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혼자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주거 불안을 겪는 가정, 질병으로 생활이 무너져 가는 주민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했다. 현장을 다니며 느낀 것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순간 도움의 손이 얼마나 빨리 닿느냐가 삶

의 무게를 달리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올해는 '돌봄 공동체' 강화를 위한 나눔 활동이 활발히 이어졌다. 여름철 무더위 대비 냉방용품 지원, 생활 불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겨울철 난방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등 사계절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의 어려움을 살폈다. 성산읍 내 기업과 단체, 마을회의 자발적 기부와 봉사 참여 덕분에 협의체의 손길은 더 멀리, 더 깊게 닿을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주민 스스로 이웃 돌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해 알려준 생활업종 종사자, 꾸준히 반찬 나눔을 이어온 봉사자, 자신의 재능을 지역 돌봄에 보탠 주민들까지. 이런 작은 참여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다. 지역복지는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려는 주민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

맞춤바지 무초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 기념행사

33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 휴무 | <http://www.cheilsa.co.kr>

예코방수 010-9086-8965

벽, 천장,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빈틈없이 꽉~악 채웁니다

교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을 채웁니다